

□ 소비동향

< 세계 인삼 소비액, 소비량 >

단위, 금액: 백만 달러, 수량: 백 만톤

국가	금액	수량	연평균 성장률(금액)		연평균 성장률(수량)	
			06-11(연)	11-16(연)	06-11(연)	11-16(연)
총계	2,498	9,081	13.9	6.4	8.1	2.7
한국	1,293	1,814	33.4	8.2	33.4	5
중국	556	4,133	4.9	3.8	4.9	1.4
일본	144	579	3.3	2.4	3.3	1.8
미국	77	385	-4.6	-0.2	-4.6	-2
인도	62	413	17.6	14.5	17.6	9.7
독일	39	229	1.2	1.6	1.2	-0.4
호주	34	60	2.5	2.6	2.5	-0.1
브라질	24	77	6.9	5.2	6.9	0.6
캐나다	22	107	1.5	3.2	1.5	1.2
베트남	20	475	33	13.8	33.1	7.7
프랑스	18	42	1.7	2.5	1.8	0.6
대만	18	52	2.9	2.5	3	0.5
러시아	18	44	14.9	7.9	14.9	2.3
스웨덴	17	149	-7.7	-0.2	-7.7	-2.1
이탈리아	15	33	2	1.1	2.1	-0.9
노르웨이	13	45	-0.6	1.3	-0.6	-1
영국	13	36	-2.4	4.6	-2.5	2.5
필란드	11	16	3.9	3.4	3.9	1.4
폴란드	10	43	3.5	2.2	3.6	-0.3

출처: Euromonitor (2011) (2013. 1. 15)

- 일본의 인삼 소비액은 3위로 1,440,000,000 달러, 소비 수량은 5,790,000,000 톤으로 세계 3위 국가임.

- 2006년~2011년 금액별 연평균 성장률(CAGR)은 3.3%이며, 2011년~2016년은 1.8%로 세계 증가 추이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

○ 젊은 층의 인지도 및 구매력이 현저히 낮고 소비의 중심이 40대 이후의 고령층으로 소비가 제한적임. 하지만 고령화 추세에 따라 소비 잠재력이 큰 시장임

- 일본에서는 인삼을 이용한 가공식품은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며, 뿌리삼의 이용법이 알려져 있지 않아 가공 건강식품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주요 가공형태로는 엑기스(エキス), 인삼 분말, 캡슐(カプセル)및 정제(알약), 과립(顆粒)및 인삼차, 드링크(자양강장제), 인삼 목캔디, 카라멜과 같은 간식류 등이 있음

- 인삼 건강식품은 종래부터 있던 엑기스나 과립 타입의 것에 가세해 최근 정제나 캡셀 등의 이른바 「보충제」 타입의 상품도 시판되고 있어, 근년 이러한 상품을 편의점이나 약국, 인터넷 통신 판매 등에서 비교적 염가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인삼은, 주로 4 ~ 6년 재배된 것을 가공해 사용하지만, 그 가공 방법에 의해 홍삼, 백삼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최근에는 흑인삼이라는 품종을 가공한 건강 식품도 시판되고 있음

- 인삼 엑기스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화, 정관장, 고려인삼제조와 같은 한국 제품이 각종 통신 판매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인삼 엑기스 부문에서는 한국 제품의 강세가 두드러져, 생산하는 일본 업체의 수가 적고, 주로 인삼 재배 농가에서 소규모의 수작업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 인삼 엑기스 제품이 한국산 제품이 주류였다면, 인삼 분말 제품은 중국산의 제품이 다수임

- 인삼 분말은 물에 타먹거나, 오부라토(オブラート-녹말로 만든 막)에 싸서 먹는 것이

권장되고 있음

- 일본인의 경우, 과실 및 약초류의 엑기스를 한국인과 같이 액상의 형태나 엑기스의 형태로 섭취하는 방법은 익숙하지 않으며, 드링크류, 과립, 정제 등의 형태로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음

- 인삼 가공 정제, 과립, 드링크류의 경우, 일본의 의약품 및 미용 관련 대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중국산 인삼 제품의 경우, 중국 운남성 지역의 특산물인 전칠 인삼을 가공한 인삼 건강식품이 시판 중

-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일본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제품들의 홍보 시 제품의 제조 지역, 제조 회사와 생산 과정 및 원재료의 품질 검수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곁들이는 것이 주요 홍보 방식임